

이르면 내달 초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현장과 시각

대학에서 신기술 구하라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지역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매매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참여업체수가 보여주듯 참여업체수나 추진성과 등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가 11억7천만 원에서 2006년 11억2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여업체수마저 45개에서 27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이 증가 추세에 있는 대전이나 인천 등과 대비되는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추진성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04~2005년 지적재산권 출원·획득수가 29개에서 16개로, 시제품 및 상품화 건수도 40개에서 38개 감소했다.

산학연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 '에로기술'을 해결하고 신제품·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광주지역의 산학연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산학연사업은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가 자금을 배정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산학연사업 지원금을 매년 3억원으로 공공 출연금 상태.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이 산적한데, 산학연과 같은 기존 사업에 눈돌릴 여유가 없다는 광주시의 '관심 부족'이 불려온 결과다.

더욱이 한정된 사업비를 '나뉘먹기식'으로 할당하다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11억5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참여업체는 40개에 달해 산술적으로 1개 업체당 2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하남산업단지내 A부품업체 대표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R&D 투자규모, 기업부설 연구소 숫자, 연구전문인력 등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광주시마저 산학연사업에 소홀히 한다면 경쟁력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물건너가고 만다"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산학연사업의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국의 '뛰는 기술'을 '걸어서' 잡을 수는 없다. 산학연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나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에어버스나, 세계 최고의 기술분야로 손꼽히는 독일 바이엘의 의약품이 산학연사업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왜 광주시만 모르는 것일까.

j/tee@kwangju.co.kr

6자, '2·13 합의' 이행 움직임 가시화

北 제공 중유 5만t 자원·조달 방식 등 협의 곧 착수

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전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북핵라인 당국자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9일 정상 출근해 내부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또 60일 이내에 북한이 이행할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에 맞춰 북한에 제공될 중유 5만톤을 한국이 책임지기로 한 만큼 자원 마련 및 조달 방식 등

에 대한 협의에 곧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주 중 외교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등의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운영방안, 대북 중유 제공 세부 계획 등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이행방안 협의와 병행해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0~24일 워싱턴을 방문,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과 회

동하고 '2·13 합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13 합의' 과정에서 남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엇박자를 연출했던 일본도 합의 이행국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 정식 가동되기에 앞서 이달 중 북측과 사전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합의 장소로는 도쿄(東京)와 평양, 싱가포르, 베이징(北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18일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공식 가동될 전망이다. 김 부상의 뉴욕 방문 일정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무 그룹 협상 테이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와 김부상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13 합의" 진전이지만 핵심문제 미결

칼 레빈 美 상원 군사위원장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8일 2·13 북핵 합의를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우라늄에 관해선 모르고 그 비밀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 처리 문제에 2·13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한 미트 롬니(공화)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2·13 합의에 문제가 있음을 본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철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의 기만을 막지 못한다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2·13 합의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번 합의는 "핵무기와 시설의 완전 폐기를 향한 긴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100만톤의 중유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절반도 못써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으로 작년 계획대비 43.3% 지출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방각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이 계획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남북협력기금 중 사업 지원비로 잡아놓았던 1조681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4천6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획 금액의 43.3%만 사용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유보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천672억원이 책정됐지만 집행된 금액은 270억원에 불과했다. 또 대북 비료지원과 수

해물자 지원 등 인도적사업을 위해 계획된 3천78억원 중에서도 비료 추가지원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2천125억원만 사용됐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경공업원자재 제공 등 경제협력기반조성지원을 위해 4천769억원이 계획됐지만 경공업 협력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한 금액의 31.9%인 1천520억원만 집행됐다.

이산가족행사도 작년 7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여기에 예정된 206억원 중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억원만 집행됐고 남북교류협력지원비도 계획했던 246억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126억원만 지출됐다. /연합뉴스



설명절 즐겁게 즐기는 평양 어린이들 설 명절인 1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美, 전작권 2010년께 이양"

韓·美 안보정책구상 회의서 강력 시사

미국은 최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0년께 한국에 이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미국은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현 시기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언급한 '현 시기부터'라는 의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서를 작성기로 한·미간에 합의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측이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1년가량 후퇴한 2010년께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

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측은 감시·정찰 등 대북억제전력이 확보되는 2012년에 전작권이 이양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올해 7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달 23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상무대학직업전문학교 606-7000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매달 31만원 지원)

정부위탁훈련(1년)	실업자훈련(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상무중·고등학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세학년 세학기 세학기SET 특별진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월급 지급 ● 취업보장 ● 교육비 지원